

《편집자 주》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인 월스트리트가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엔론 및 월드컴 등의 회계부정 파문으로 치부를 드러낸 미국의 기업회계 관행과 월스트리트의 신뢰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주식시장을 짓누름에 따라 연일 폭락세를 보이던 주가가 7월 24일에는 사상 최대의 거래량을 기록하며 15년 만의 폭등세로 돌변하는 이변을 연출하는 등 미국의 주식시장은 방향타를 상실한 채 예측불허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실물 - 호조, 금융 - 부진”으로 요약되는 미국 경제의 불안정과 주가 폭락으로 국제 투자자본의 유입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경상적자 확대의 영향으로 달러가치 마저 하락하면서 미국의 금융시장은 현재 그야말로 “세계 제로”의 혼돈에 처해 있다. 미국 경제 및 금융시장 불안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품목별로 살펴본다.

I. 미국의 최근 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

1. 경제 동향

□ 경제회복에 대한 논란 가열

감세 및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민간소비 확대, 대테러 전쟁 수행에 따른 정부지출 증가,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지수 회복 등에 힘입어 실물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기에 접어들었다는 낙관론과 높은 실업률, 기업 실적 악화 및 신뢰성 상실, 주가 폭락 및 경상수지 악화 등의 영향으로 경제회복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 낙관론

- IMF : 금년 경제성장률이 3.0~3.5%에 달할 것으로 전망
- FRB : 금년 예상 경제성장률을 지난 2월의 2.5~3.0%에서 7월에는 3.5~3.75%로 상향 조정
- 채권시장협회 : 경기부양 정책에 힘입어 3.8% 성장 전망

○ 비관론

- 연방예금보험공사 : 경제의 더블딥(Double Dips) 가능성 제기
- 골드만삭스 : 2/4분기 예상 경제성장률을 3.0%에서 2.0%로 하향 조정
- UN : 금년 경제성장률이 2.5%에 머물 것으로 전망

□ 금융시장 불안으로 경제회복에 대한 우려가 점차 확산

최근의 주가 폭락 및 달러가치 약세가 그동안 견실한 것으로 평가되던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금융비용 상승 및 경쟁력 약화를 초래, 향후 경제회복에 대한 전망이 매우 불투명

- 그린스펀 FRB 의장은 최근 의회 증언을 통해 회계부정 파문 등에 따른 주식시장의 침체로 소비지출과 기업투자가 위축되면 경제회복에 악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진단
- 뉴욕 타임즈 등 미국의 주요 신문들도 뮤추얼 펀드를 비롯한 주식 투자를 통해 은퇴를 준비하던 많은 미국인들이 주가 폭락으로 다시 일터를 찾아다니고 소비를 자제하고 있는 현실을 비중있게 취급

□ 경제회복에 대한 우려로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

- 메이시 및 블루밍데일 백화점의 모회사인 Federated Department Stores Inc.와 JC 페니는 7월 매출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카펫 제조업체인 Mohawk도 3/4분기 수익율을 2~5%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UBS Warburg도 Home-Depot Inc., Lowe's Co., Lines' N Things Inc., Bed Bath & Beyond Inc. 등 대형 유통체인의 예상 수익율을 하향 조정

□ 결국, 금융시장 불안이 소비자들의 실제 소비 행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경제회복의 관건

- 미시간 대학의 7월 소비심리지수는 2001년 11월(83.9) 이후 가장 낮은 86.5를 기록
 - 하락폭도 9·11 테러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5.9 포인트

미국의 실업률 및 소비자 신뢰지수 추이

구 분	2001.12	2002.1	2002.2	2002.3	2002.4	2002.5	2002.6	2002.7
실업률(%)	5.8	5.6	5.5	5.7	6.0	5.8	5.9	-
소비자신뢰지수	94.6	97.8	94.1	110.7	108.5	110.3	106.4	-
소비심리지수	88.8	93.0	90.9	95.7	93.0	96.9	92.4	86.5

※ 주 : 소비자 신뢰지수 - Conference-Board, 소비심리지수 - 미시건대학

- 그러나, 미국 경제가 튼튼한 펀더멘털과 자정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40년래의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금리와 실업률 감소로 인해 소비가 활성화되고 기업투자 증가로 이어질 경우, 금년 하반기에도 3%대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S&P의 David Wiss도 지난 '90년대의 4%대 성장과 4%대 실업률에 익숙해 있는 미국 소비자나 투자자들이 최근 상황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있으나, 경기침체로의 재진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

2. 금융시장 동향

1) 주식 시장

엔론 및 월드컴 등 대기업의 파산과 회계부정 파문으로 촉발된 주식시장 불안이 미국 기업들의 잇단 실적 악화 발표 및 신뢰성 상실,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 확산 및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주가 폭락사태로 이어지면서, 공황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

□ Dow Jones 지수가 7월 25일 8,186을 기록하면서, 지난 4월 23일의 10,353에 비해 3개월 만에 20.9% 하락

○ 나스닥 지수는 7월 25일 1240으로 4월 23일의 1,796에 비해 30.9% 폭락

□ 주가 폭락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 및 경쟁력 약화의 영향으로 미국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

○ Microsoft, Sun Microsystems, AT&T, Lucent 등 정보통신기업들이 2/4분기 실적 악화 및 대규모 감원계획 발표

○ Bank of America, J. P. Morgan Chase Co, Citigroup 등도 에너지, 섬유, 철강, 통신 업계에 대한 대출을 감축하고 금리를 인상

2) 외환 시장

기업회계 부정과 파문으로 달러표시 자산의 안정성 및 신뢰성이 저하되고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로 미국내 투자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국제 투자자본의 유입이 감소하고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달러가치가 약세가 지속

□ 달러화의 최근 동향

- 주요 통화에 대해 30개월 연속 약세를 보이던 달러화는 최근 들어 엔화 및 원화에 대해 급격한 약세 시현
 - 엔/달러 환율 : (1. 25) 134.7엔 $\Rightarrow$ (7. 25) 116.5엔(↓13.5%)
 - 원/달러 환율 : (4. 12) 1,332원 $\Rightarrow$ (7. 25) 1,171원(↓12.1%)

□ 달러가치 약세 원인

- 대미 국제 투자자본 유입 감소
 - 자본수지 : (01. 4/4) 1,509.1억달러 $\Rightarrow$ (02. 1/4) 996.4억달러
 - 주식시장 : (00~01. 1/4 평균) 364억달러 $\Rightarrow$ (02. 1/4) 176억달러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확대
 - 미국 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 확대
 - 적자규모 : (01. 4/4) 951억달러 $\Rightarrow$ (02. 1/4) 1,125억달러
 - 이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도 지속 증가
 - 적자비율 : (01. 3/4) 3.57% $\Rightarrow$ (01. 4/4) 3.71% $\Rightarrow$ (02. 1/4) 4.31%

□ 달러화의 향후 전망

- 국제 투자자본 유입 감소 및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 달러가치 약세 요인이 지속, 달러화는 앞으로도 당분간 약세를 보일 전망
 - 달러가치 약세는 수출증대를 통한 경상수지 적자 축소라는 미국의 이해와 부합
- 그러나, 달러가치가 급락할 경우에는 세계경제의 침체를 막기 위해 선진국이 시장에 개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급락 가능성은 희박하며,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건실한 회복으로 강세 반전 전망

Ⅱ.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개 관

□ 대미 수출현황

- 우리나라의 2001년도 대미 수출은 312억불로 총수출의 20.7%를 점유
- 달러 약세로 인해 7월 25일 현재 원화 환율이 2001년도 말에 비해 12%가 하락한 1,171원을 기록하고 있으나, 2002년도 상반기중 대미 수출은 155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1.1% 감소에 불과
 -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4%로 2001년도 수준 유지

□ 대미 수출전망

- 부정적인 요인과 긍정적인 요인이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화 약세에 따른 원화 강세는 기본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수출채산성 악화를 초래, 금년 하반기의 대미 수출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 우려
 - 부정적 요인 : 금융시장 불안에 따라 어느 정도 미국 경제의 회복지연 불가피 및 소비심리 위축 가능성,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 더욱 악화 전망
 - 긍정적 요인 : '98년도 이후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었으며, 엔화 또한 달러화에 비해 강세를 보여 수출 경쟁력 악화를 상쇄
-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앞으로도 완만한 성장을 지속, 소비지출 및 수입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품목별로 명암이 엇갈릴 전망
- 결국,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로 제고된 국가 이미지를 효과적인 수출 마케팅으로 연결,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확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일 반 기 계		설비투자 위축과 가격 경쟁력 약화로 단기적으로는 수출부진이 예상되나, 미국 정부의 경제중립부흥법안 통과 및 저금리 정책의 지속으로 설비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소비수요도 확대되어 중장기적으로는 점차 수출회복 전망
자동차		소비수요 위축과 가격 경쟁력 약화로 어느 정도 어려움은 예상되나, 월드컵 개최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지속적인 신차종 출시, 매력적인 워런티 및 옵션 프로그램에 힘입어 수출호조 지속 전망
선 박		원화 강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로 신규 수주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나, 이미 확보한 수주잔량이 2004년까지 남아 있어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
철 강 제 품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및 반덤핑 예비판정 등 연쇄적인 수입규제 조치와 완성차 업체 및 주택부문 등과 같은 주 수요처의 투자 위축으로 상당기간 수출부진 전망
석유화 학제품		소비수요 위축과 가격 경쟁력 약화로 어느 정도 어려움은 예상되나, 중간재로서의 제품 특성상 큰 영향은 받지 않을 전망
섬유류		원화 강세에 따른 중국 등과의 가격경쟁 격화와 경제회복 지연에 따른 소비수요 위축으로 수출부진 전망
반도체		경제회복 지연에 따른 수요 위축에도 불구하고 수출호조 전망
컴퓨터		기업 및 개인 소비수요 위축과 가격경쟁 격화로 단기적으로는 수출부진이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는 경제회복에 따른 시장수요 회복에 힘입어 수출호조 전망
통신 기기		IMT 2000 신제품 모델 출시와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 등의 영향으로 새로운 소비가 창출되고 있으며, 무선통신기기를 중심으로 수출호조 전망
가 전		소비수요 위축으로 매출하락 신호가 감지되고 있으나, 디지털 가전의 우수한 품질 경쟁력 및 매출 확대에 힘입어 수출호조 전망
타이어		품질 대비 뛰어난 가격 경쟁력 및 Big 3에 대한 납품 성사에 힘입어 수출호조 전망
플라스 틱제품		소비수요 위축과 가격 경쟁력 약화로 수출부진 전망

※  -수출 10% 이상 증가,  -수출 0~10% 증가,  -수출 감소

2. 일반기계

□ 2002년도 하반기

- 달러화 약세에 따른 원화 강세는 우리나라 업계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감소는 물론, 수익구조 악화에 따른 수출가격 인상을 초래, 우리나라산 기계류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미국 주식시장의 침체로 인해 기업의 수익성이 감소됨에 따라, 미국의 제조기업들은 생산시설 확대를 위한 추가 설비투자 계획을 유보하고 경제동향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매출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신규기계 구매 보다는 중고기계 구매 및 기존에 사용중인 기계의 재사용을 추진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기계류 시장이 위축 전망

□ 2003년도

- 미국의 경제회복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경제가 늦어도 내년에는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견해가 다소 앞서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산 기계류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제고가 대미 수출확대의 최대 관건으로 작용 예상
 - 가격수준 비교 : 한국산 100, 일본산 153.5, 대만산 104
 - 품질수준 비교 : 한국산 100, 일본산 107.2, 대만산 91.1
- 미국 정부의 경제종합부흥법안 통과 및 저금리 정책 지속으로 인해 설비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소비수요도 확대되어, 미국 공작기계 시장은 향후 점차적으로 회복 전망
 - 경제종합부흥법안 : 2001. 9. 11 부터 2004. 9. 11 까지 신규 기계를 구매하거나 설치한 업체에 대해 소요비용의 30%를 세금 공제

3. 자동차

□ 2002년도 하반기

- 미국 경제 및 금융시장 불안이 자동차 수요에 영향을 주는 뚜렷한 증거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소비자인 자동차의 특성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2002년도 상반기중 미국의 자동차 수요는 총 841만대로 전년동기 대비 3.1% 감소하였으며, 연간으로는 총 1,650만대로 전년 대비 3.6% 감소 전망
 - 금년 들어 미국산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수입차의 점유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산도 3.4%에서 4%로 증가 예상
- 이에 따라, 미국 자동차 메이커들이 사상 초유의 파이낸싱 전략을 구사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어 경쟁 여건이 더욱 악화 전망
 - GM은 모든 차종에 대해 60개월간 0%의 할부판매 이자율 제시
 - 혼다는 어코드의 소매가격을 1만 9천달러에서 사상 최저 수준인 1만 6천달러로 책정, 벌써부터 경쟁 차종인 현대 소나타의 판매 둔화 현상을 초래
- 미국의 경제회복 지연으로 시장수요가 감소하고 원화 강세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대미 자동차 수출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예상되고는 있으나, 품질향상 및 신차종 출시와 월드컵 개최를 통한 Image 제고에 힘입어 대미 자동차 수출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
 - 특히, 미국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산타페와 꾸준한 판매를 지속하고 있는 엘란트라, 10년 10만마일 워런티와 다양한 옵션 및 매력있는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기아는 낙관적인 입장

- 단, 달러가치 약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수출채산성 악화로 인해 우리나라로부터의 공급가격이 인상, 그동안 우리나라산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던 인센티브 철폐 및 가격 인상이 불가피, 대미 자동차 수출확대에 악영향 우려

□ 2003년도

- 미국의 최근 금융시장 불안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진정되고 여러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면, 금년말 또는 내년초부터 미국 경제의 조기 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동차 판매도 증가 전망
- 특히,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8월 출시 예정인 신차종에 대한 본격 홍보를 통해 금년말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기아자동차는 내년에도 금년 하반기와 비슷한 판매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자신

4. 선 박

□ 2002년도 하반기

- 선박 수출은 당해 년도에 얼마나 많은 대형 선박을 건조했느냐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으며, 대미 수출도 조명선, 소방선, 준설선 등 특수 기능용 선박을 건조 납품했던 '99년 및 2000년에는 315백만달러 및 343백만달러 등을 기록했으나, 대형 선박 건조 및 납품실적이 없었던 2001년에는 17백만달러로 크게 감소
- 우리나라의 대미 선박 수출은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경제회복 불안에 따른 발주물량 감소와 달러화 약세에 따른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인해 신규 선박 수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2003년도

-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 이미 확보한 선박수주 잔량이 2004년까지 남아 있어 2003년도 선박 건조 및 수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달러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2003년도 선박 수주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달러화 약세에 따른 원화 강세로 인해 수익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5. 철강제품

□ 2002년도 하반기

- 우리나라의 금년 대미 철강 수출은 당초 지난해에 비해 2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지난 3월 20일 발효된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의 영향이 본격화되는 하반기에는 더욱 큰 폭으로 감소 전망
 - 주력 수출품목인 판재류의 경우, 현재 미국 내수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나, 30%의 긴급 수입관세를 커버하기에는 역부족
- 이에 따라, 수입제한조치 예외품목인 열연강판을 제외한 냉연강판 및 아연도강판 등은 미국 내수가격이 추가로 상승하지 않을 경우, 대미 수출의 단기간내 회복이 난망
 - 특히, 냉연강판의 경우에는 지난 4월말의 반덤핑 예비판정에 따른 추가관세 부담으로 난관에 봉착해 있으며, 봉형강류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건설경기 호조 및 미국의 시황회복 지연에 따라, 한동안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한편, 미국 주식시장 침체 및 달러화 약세 등에 따른 가처분소득 감소의 영향으로 미국의 전반적인 소비수요가 위축될 경우, 철강의 주수요처이자 경기민감 업종인 자동차 및 주택건설 등을 중심으로 철강 수입수요가 하락 전망

□ 2003년도

- 우리나라의 내년 대미 철강 수출전망도 여전히 어두운 상황으로, 201조 관세율이 6%로 하향 조정되어도 전체적으로 커다란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조 관세율이 매년 6%씩 하향되기 때문에 대미 철강 수출이 회복되기 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
- 주력 수출품목인 판재류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산의 경쟁력 우위가 인정되고 있으나, 형강류와 같은 저급제품은 경쟁력을 점차 상실하고 있어 향후 미국 철강시장에서 고전이 예상되며,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한 WTO의 결정이 나오는 내년까지는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부진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6. 석유화학제품

- 석유화학제품은 최종 소비재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소비재 수요가 급감하지 않는 이상 직접적인 타격을 크게 입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유력 석유화학제품 바이어들은 예상외로 최근의 미국 경제 및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 특히, 미국의 석유화학제품 바이어들은 환율 변동에 따른 원자재값 변화를 과거에도 수차례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경제불안과 같은 외부여건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제품은 현재 원화 강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는 있으나, 미국의 경제 및 금융시장 불안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어 단기적으로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미국의 경제 및 금융시장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석유화학제품도 피해를 입지 않을 수는 없으나 생필품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중간재로서의 특성상 여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전망

7. 섬유류

- 우리나라의 대미 섬유류 수출은 미국의 경제 및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섬유 후발국들의 생산능력 제고 및 저가 물량 공세로 인해 가격 경쟁력 약화 및 수출단가 하락의 이중고를 경험
- 또한, 미국은 베트남, 사하라 이남 국가 및 중남미 국가들과特惠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NAFTA, CBTPA 등과 같이 미국산 원자재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무관세 및 무쿼터 수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대미 섬유류 수출 공세가 거세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미 섬유류 수출여건은 더욱 악화
- 미국의 섬유류 시장은 9. 11 테러 이후 극도의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과다재고 정리,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회사들의 파산 또는 점포 축소 및 폐쇄 등과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경쟁력 위주로 재편되었으며,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지난 1년 동안 의류 소비를 엄격히 자제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인 의류 구매시기가 임박한 것으로 평가
- 이에 따라, 미국의 유력 섬유류 바이어들은 경제 및 금융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현재 적정량의 오더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 기미가 보이기만 하면 오더를 더욱 활발히 진행할 것으로 예상
 - 이 경우, 미국의 섬유류 바이어들은 지난 1년 동안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수출업체에게 수입단가 인하를 더욱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며, 결국 가격 경쟁력에 의해 오더 수주 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경쟁국에 대한 원화 환율의 경쟁력이 우리나라의 대미 섬유류 수출확대를 위한 최대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
 - 특히, 미국 섬유류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고정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달러화 약세로 인해 오히려 여타 국가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더욱 제고되어 대부분의 대미 섬유류 수출국들이 수출증가율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20% 이상의 수출증가율을 시현

-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미 섬유류 수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미국 경제 및 금융시장 불안이 아니라 달러화 약세에 따른 원화 강세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달러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대미 섬유류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
 - 금년 4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원화 강세로 인해 10~15%의 오더가 다른나라로 넘어가고 있으며, 현재의 원화 환율로는 오퍼를 내기도 두려울 정도로 단기간내에 원화 강세가 큰 폭으로 진전됨에 따라, 오퍼 시점과 네고 시점에 2~3개월의 갭이 발생하는 섬유류의 비즈니스 특성상 큰 부담으로 작용

8. 컴퓨터

- 컴퓨터 수요의 70% 가량은 기업용이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과 전망에 따라 수요가 좌우
- 당초에는 대다수 기업들이 지난 '99년 Y2K 대비용으로 구입한 컴퓨터들을 2002년도에 대부분 교체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최근의 미국 경제 및 금융시장 불안의 영향으로 2003년도 상반기까지는 특별한 수요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
- 특히, 경기가 불안해질수록 수요가 가격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저가 제품의 수요가 증대되어 공급업체간의 가격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 실제로, 컴퓨터 유통업체가 직접 아웃소싱을 통해 유통업체 자체 브랜드의 컴퓨터를 시장에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델 컴퓨터와의 경쟁에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려는 주요 메이커들의 가격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IBM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다시 시작되는 등 미국의 컴퓨터 시장은 이미 무한경쟁에 돌입

- 한편, TFT LCD 모니터 등 박막 모니터로의 수요변화 추세는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제품 교체가 지연됨에 따라 메모리 확장 등과 같은 업그레이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분석
-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금년 대미 컴퓨터 수출은 전년도 수준에 머물 전망이며 내년에는 미국의 경제회복에 따라 시장수요도 되살아나면서 10%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

9. 무선통신기기

□ 2002년도 하반기

- 미국의 무선통신기기 시장은 IMT 2000 신제품 모델 출시와 더불어 다양한 텍스트와 소리 및 이미지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가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최근 들어 미국 경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일반인들의 소비가 급감하는 상황으로까지는 진전되지 않고 있으며, 지상사나 바이어들도 현재의 경제 및 금융시장 불안이 사업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 상황
- 오히려, 핸드폰 등 무선통신기기 업체들은 매출의 지속적인 증가를 낙관하고 있으며 특히, 무선통신기기의 경우에는 연간 Commitment에 의해 제품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물량이 변동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SPRINT 또는 VOICE STREAM 등과 같은 통신서비스 기업이 금융시장 불안의 여파로 파산할 경우에는 건잡을 수 없는 사태로 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실정이나, 단기적으로는

삼성과 엘지를 주축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대미 핸드폰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

□ 2003년도

- 현재의 미국 경제 및 금융시장 불안이 우리나라의 IMF 사태처럼 미국 기업의 병폐를 제거하는 계기가 될 것이나, 장기화되지 않고 단기간 내에 미국 경제가 정상궤도를 찾을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
- 그러나, 장기화될 경우에는 필수품이 아닌 사치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무선통신기기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시장 수요의 급격한 위축과 함께 통신기기 업체들이 거래하고 있는 대형 통신서비스 기업의 연쇄적인 부도 또는 법정관리 등으로 인해 미국의 무선통신기기 시장기반이 와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10. 반도체

- 미국의 경제회복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지연되면서, 최근 반도체 경기는 공급의 제약에 의해 시장가격이 좌우되는 현상이 발생
- 즉, 기존 제품에서 신기술 제품으로 급속도로 움직이는 기술경쟁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나, 300밀리미터 웨이퍼 공장 건설에 30억달러나 소요되는 등 글로벌 기업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투자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은 경쟁에서 낙오
-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256메가 제품으로 조기 이동한 기업은 시장 가격 상승에 힘입어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기업은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 어려운 상황

- 미국의 경제회복 지연으로 반도체 수요도 상당기간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2003년도의 컴퓨터 수요가 현재 예측대로 10% 수준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선발 반도체 업체들도 후발 업체들의 물량 공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나라의 대미 반도체 수출은 중장기적으로 선발 업체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평년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

11. 가전제품

- 최근의 미국 경제 및 금융시장 불안에 따라, 금년 상반기중 디지털 정보 가전기기의 매출 확대에 힘입어 급신장세를 보이던 가전부문에서도 전반적인 매출하락 신호가 점차 감지
- 우리나라를 비롯, 외국으로부터 90% 이상의 가전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아틀란타 소재 유력 유통업체 관계자에 의하면, 미국의 경제회복 지연으로 최근 들어 일부 가전제품의 매출이 최고 50% 까지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해외 아웃소싱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 금융시장 불안이라는 돌발 변수를 제외하면, 미국 경제는 현재 누적 재고 해소를 통한 수입수요 회복 국면으로의 진입 과정에 있어 우리나라의 대미 가전제품 수출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미국 경제 및 금융시장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대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우리나라산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지난 몇 년 동안 매우 빠른 속도로 일본산 가전제품을 대체하여 왔으며, 경쟁국에 비해 가격 대비 뛰어난 품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12. 타이어

- 우리나라의 금년 대미 타이어 수출은 1~5월중 1억 7천 5백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억 1천 7백만달러에 비해 49.3% 증가
-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산 자동차의 두자릿수 판매증가 지속, 보다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 및 품질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 등에 힘입은 결과로서, 미국 타이어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도 2000년도 6.4% 및 2001년도 7.7%에 이어 금년 1~5월에는 9.4%로 급증 추세
- 미국 경제 및 금융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인 주가 폭락 및 달러화 약세 가운데 달러화 약세에 따른 원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 미국의 타이어 시장에서 우리나라산 타이어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어 대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나, 환율이 극단적으로 요동치지 않고 주가 하락에 의한 실물부담으로 한정된다면 오히려 대미 수출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경기침체가 대공황과 같은 극단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어 자동차 생산 및 판매가 급감하는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을 경우, 사치품 보다는 필수품 성격이 강한 타이어의 특성상 RE용 및 OE용 타이어에 대한 수요 급감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
 - 주가 폭락이 어느 정도 타이어의 소비수요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구매결정에서 차지하는 가격 요인의 비중이 더욱 높아짐으로써, 미국의 RE용 및 OE용 타이어 시장에서 품질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은 우리나라산 타이어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예상
 - 한국타이어의 기존 Ford 납품(연간 150만본)에 이어 올해 GM에 대한 납품(연간 30만본)이 새로 성사되어 내년부터 납품이 본격 이루어질 예정임에 따라, 지속적인 대미 타이어 수출증가 요인으로 작용 전망

13. 플라스틱제품

- 소비재 플라스틱제품은 생활 필수품으로서의 제품 특성상 상대적으로 경기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고 있으나, 달러화 약세에 따른 원화 강세는 필연적으로 우리나라산 플라스틱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를 초래, 대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특히, 저가 플라스틱제품의 경우에는 중국산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수출비중이 낮아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나, 우리나라 플라스틱제품 수출의 주종을 차지하고 있는 고가 제품의 경우에는 품질은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졌지만 가격 경쟁력에 의존하여 그동안 근근이 시장을 지켜왔으나 원화 강세에 따른 경쟁력 상실로 비교적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즉, 미국에 대한 테러위협 지속, 고용기회 제한 및 금융시장 불안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감소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가인 자동차부품 및 건축자재 부문의 우리나라산 플라스틱제품의 수요를 기피하는 대신 중국산과 같은 저가 제품으로 수요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